

부 고

메리 레넷 MARY LENETTE 수녀 ND 6427

레넷 안젤라 마셀로 Lenette Angela MARCELLO
(이전 메리 셰리즈 Mary Sherise 수녀)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9 년 2 월 23 일 오하이오 워렌
서 원: 1969 년 8 월 15 일 오하이오 샤든
사 망: 2026 년 3 월 11 일 대학 병원 지아거 메디컬 센터
매 장: 2026 년 3 월 20 일 샤든 부활 묘지

레넷은 레너드와 프란시스(루드윅) 마셀로 부부의 여섯 자녀 중 첫째였다. 3 개월 조산으로 태어난 레넷은 평생 폐활량 부족과 시력 저하로 고생했다.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대가족과 수없이 많은 친구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 가족은 성 야고보 교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레넷과 형제자매들은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레넷은 뛰어난 학생이었고, 독서와 음악 및 언어 예술 분야의 재능을 키우는 데서 만족감과 기쁨을 찾았다. 6 학년 때부터 이미 수도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8 학년 졸업 후, 아스피랑으로 받아들여져 샤든에 새로 설립된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3 학년이 되자 청원자가 되어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다. 그리고 착복식에서 메리 셰리즈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메리 레넷 수녀는 노틀담 대학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의 고등학생들은 수녀가 문학, 언어,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을 좋아했다. 수녀는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고, 학생들도 수녀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 수녀는 버몬트주 미들버리 대학의 프랑스어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생 단체를 데리고 퀘벡, 프랑스,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두 명의 신학생에게 기꺼이 프랑스어 개인 지도를 해주기도 했다. 수녀는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쉽고 친절했다.

1999 년, 메리 레넷 수녀는 샤든 관구장의 행정 보조로 두 번째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언어에 대한 애정을 새롭고 색다른 방식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 관구와 수녀회를 위해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수녀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없었으며,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었다. 모든 “세부 사항 중의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데 능숙했다. 요약하고 종합하며, 편집하고 교정하고, 편지와 연설문의 초안을 만들고, 설문조사 응답을 정리하며, 관구 위원회를 보조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관구 리더십을 지원하는 수녀의 능력은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았다.

메리 레넷 수녀는 레프러콘 재단에서의 활동과 성 헬렌 성당 기도 솔 사도직 그룹의 일원으로서, 치유와 격려가 필요한 본당 신자들에게 기도와 코바늘 뜨기라는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움과 위로를 전했다. 수녀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건강상의 한계를 잘 관리하는 법을 터득했다. 메리 레넷 수녀에게 가족은 삶의 버팀목이었다. 수녀는 점점 더 넓어지는 친척과 친구들, 공동체 내의 수녀들에게 헌신했다. 우리는 그 온화한 존재감과 사랑 어린 지지에 감사드린다.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